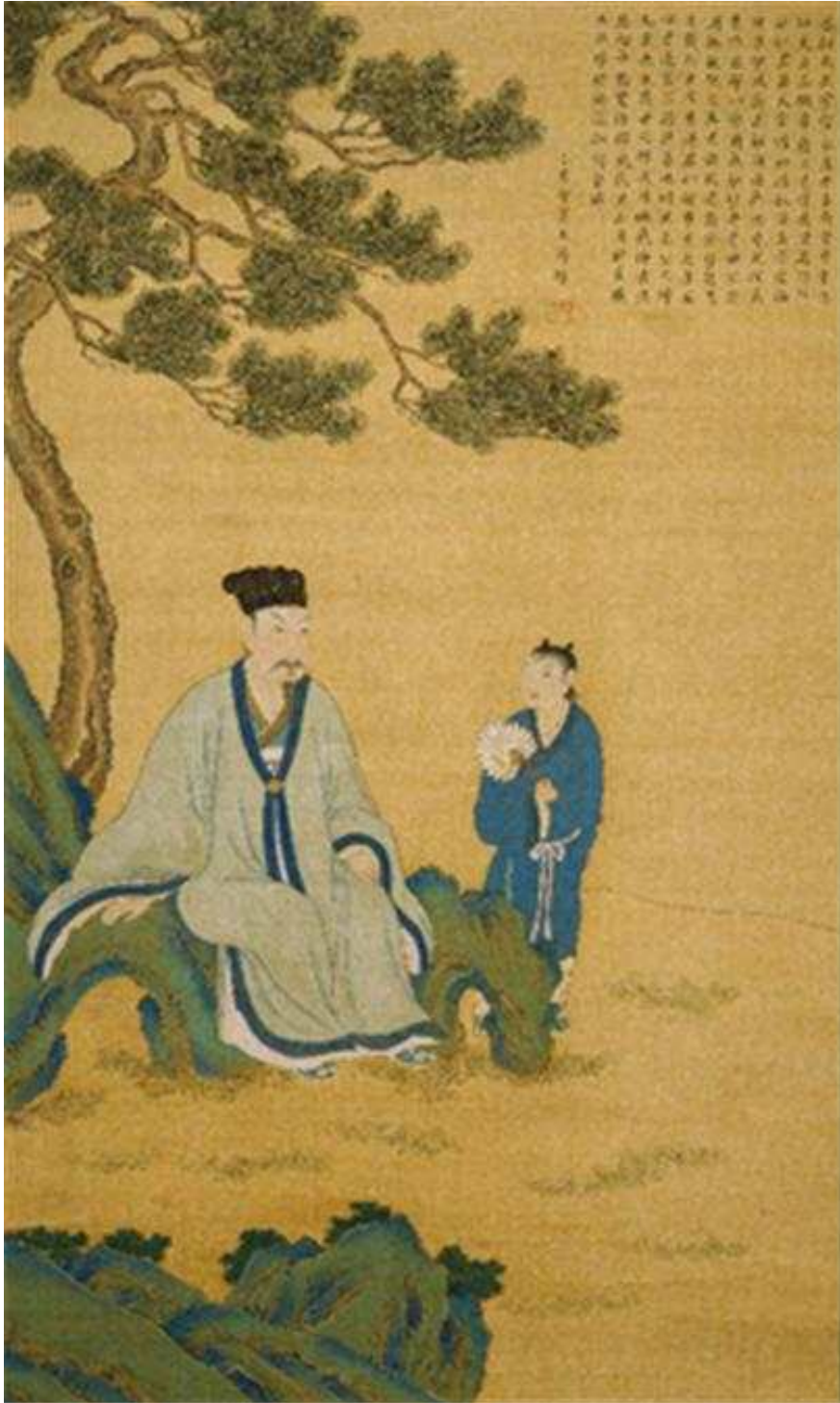


사 진 자 료



숙종 왕세자 책봉 옥인과 보록, 죽책과 죽책함

1667년(현종 8년) 숙종을 왕세자로 임명할 때 제작한 옥인과 죽책, 죽책을 담은 함



제갈량을 그린 그림 <제갈무후도(諸葛武侯圖)> 국립중앙박물관 소장

중국의 명신(名臣) 제갈량(諸葛亮, 184~234)을 그린 그림이다. 숙종은 1695년 「제갈무후도」를 그리게 하고 그림에 직접 글을 지었다. 이 글에서 숙종은 제갈량과 유비의 만남을 현신과 명군의 만남으로 묘사하여, 신하들에게 충심을 독려했다.



태조가 타던 말 여덟 마리를 그린 화첩 <팔준도첩(八駿圖帖)> 국립광주박물관 소장

태조가 타던 말 여덟 마리를 그린 그림과 관련된 글을 모아 엮은 화첩이다. 숙종은 세종 대 안견이 그린 팔준도가 소실된 것을 안타깝게 여겨 새로 그리게 하고, 직접 글을 지어 태조의 업적을 되새겼다.



숙종이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여 그린 그림, 기사계첩(耆社契帖),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
1719년(숙종 45) 59세가 된 숙종이 기로소(耆老所)에 들어간 것을 기념한 행사를 기록한 그림을 담은 그림첩이다.



상평통보

1678년(숙종 4)에 숙종이 영의정 허적의 건의를 받아들여 발행한 화폐로 조선 말까지 널리 사용되었다. 호조(戶曹)·상평청(常平廳)·진휼청(賑恤廳)·어영청(御營廳)·사복시(司僕寺)·훈련도감(訓練都監) 등의 관청과 군영에서 발행하였으며 이후 각 지방의 관청에서도 만들어 유통시켰다.



숙종이 북한산성에 대해 지은 시를 새긴 현판

숙종이 북한산성을 짓기로 결정한 뒤 지은 시와 이듬해 북한산성에 행차하여 완성된 성곽을 둘러보며 지은 시를 새긴 현판이다. 북한산성은 숙종이 구상한 도성 중심 방어체제의 핵심이었다. 북한산성은 1711년에 완성되었다.